

# “‘인간실격’은 어둡지만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

“무겁고 어두운 작품을 피하고 싶었어요. (‘인간실격’) 조금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라 택했죠.”

지난 4일 첫선을 보인 JTBC 주말드라마 ‘인간실격’으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모습을 드러낸 전도연(48)은 최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많이 떨리고 부담된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도연과 마찬가지로 ‘응답하라 1988’·‘운빨로맨스’ 이후 5년 만에 드라마를 택한 류준열(35)도 “드라마를 하지 못한 것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며 “영화보다 긴 호흡으로 더 많은 분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너무 쉬웠다”고 반응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외출’, ‘덕혜옹주’,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으로 관객들과 만나왔던 허진호 감독은 ‘인간실격’을 통해 드라마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드라마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용기도, 자신도 없었는데 대본을 받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연출을 맡은 계기를 밝혔다.

이어 “영화는 대본이 완성된 다음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만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재밌고 신선했다”며 “앞으로 드라마 감독으로 불려달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또 “4부까지의 대본을 읽고 전도연과 류준열을

### JTBC 주말드라마로 5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전도연 모든것 잃어버린 부정 역 맡아... “많이 떨리고 부담돼” ‘봄날은 간다’ 허진호 감독 “대본 좋아 드라마 도전”

자신의 글을 뺏기고, 배 속의 아이를 잃고, 남편마저 빼앗기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정 역을 맡은 전도연은 “어떻게 전도연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인물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어떤 식으로 부정을 이해해야 하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호흡을 맞추게 된 류준열에 대해서는 “남자 배우들은 대체로 크고 화려한 작품들을 하고 싶어해서 안 할 줄 알았다.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의외였고, 저와 류준열 씨가 어떤 모습으로 화면을 채울지 너무 궁금했다”면서 “첫 촬영을 하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잘 어울려’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했다”며 웃었다.

류준열은 “데뷔 전부터 극장에서 늘 보고 즐겼던 작품들을 하셨던 감독님과 전도연 선배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며 “시나리오도 좋은데 두 분과 함께한다고 하니 결정하기는

생각했다. 처음 생각한 배우와 같이 작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찍을 수 있게 된 게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배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 감독은 ‘인간실격’이라는 작품 제목에 대해 “살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때 느끼는 상실감과 상처,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를 찾아가는 이야기 같다”며 “어려운 이 시국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자기가 느끼는 삶의 온도를 0.1℃라도 올리는 드라마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인간실격’에는 전도연, 류준열 외에도 배우 박병은, 김효진, 박민환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드라마 ‘인간실격’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류준열, 허진호 감독, 전도연.(사진 왼쪽부터)

### 다시 뭉친 ‘두 쉐 언니’ 이경실·안문숙 ‘싱글빙글 살롱’ 맡는다



‘싱글빙글 살롱’을 맡은 이경실(사진 위)과 안문숙.

채널 뷰는 오는 9월 밤 9시 신규 토크쇼 ‘싱글빙글 살롱’을 선보인다고 6일 예고했다.

MC로는 ‘원조 쉐 언니들’로 불리는 개구무언 이경실과 배우 안문숙이 나선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건 10년 만이다. 프로그램은 미혼, 이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연예계 스타들이 출연해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포맷이다.

이경실은 살롱 주인장으로 혼자일 때와 혼자가 아닌 때를 모두 겪어본 경험을 살려 ‘싱글’의 고민을 헤아리는 역할을 맡았다. 2년 만에 복귀하는 안문숙은 ‘오리지널 독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양재진 등 의료진도 출연해 출연진의 건강을 진단한다. /연합뉴스

### 백예린 목소리로 듣는 토이·넬 커버 앨범 ‘선물’ 10일 발매

대중음악계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솔로 여성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는 백예린(사진)이 다양한 가수들의 곡을 커버한 앨범을 낸다.

최근 소속사 블루바 이닐에 따르면 백예린은 오는 10일 오후 6시에 커버 앨범 ‘선물’을 발매한다.

이번 커버 앨범에는 토이의 ‘그럴 때마다’, 소희와 이한철이 각각 부른 ‘산책’, 김정차마 ‘안티프리즈’ (Antifreeze), 이영훈 ‘돌아가자’, 장기호 ‘왜? 날, 넬 한계’ 등 총 6곡이 수록된다.

이 가운데 ‘산책’, ‘그럴 때마다’는 지난 2019년 백예린이 음악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 개인 계정에 직접 커버 음원을 공개해 팬들에게 사랑받은 곡이다. /연합뉴스



# tvN ‘유퀴즈’ 3년만에 ‘메가 지적재산’ 자리잡아

### 시청률 3배·매출 8배 올라

tvN은 지난달 29일 3주년을 맞은 간판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이하 ‘유퀴즈’)이 tvN의 ‘메가 지적재산(IP)’으로 자리 잡았다고 6일 밝혔다.

tvN에 따르면, ‘유퀴즈’는 3년 만에 시청률이 3배 오르고, 관련 매출은 8배가 성장했다.

‘유퀴즈’의 첫 방송 시청률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기준 2.3% (이하 비정상과 유료가구)에 그쳤으나, 지난달 25일 방송된 120회의 시청률은 6.7%까지 오르면서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프로그램 매출액 및 광고 판매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설한 ‘유퀴즈’의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약 61만 명, 영상 총 조회 수 2억4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tvN은 이러한 ‘유퀴즈’의 성장 비결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꼽았다.

CJ ENM이 외부 전문 리서치 업체와 함께 설계한 BPI(Brand Power Index) 조사에 따르면, 타 채널을 포함한 138개 프로그램 사이에서 ‘유퀴즈’는 예능 프로그램 부문 1위, 드라마와 시사교양까지 합친 전체 프로그램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년 연속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열린 2021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예능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tvN은 이외에도 ‘유퀴즈’가 전하는 보편적인 이야기, 제작진의 연출력,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형성된 탄탄한 팬덤, 유재석-조세호 두 MC의 호흡이 프로그램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김민석 PD는 “우리 프로그램은 유재석 씨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호흡을 바탕으로 탄생했고, 조세호 씨 또한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두 자기의 사람 여행이 앞으로 오래 이어질 바란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연합뉴스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납시다

###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